

# 2025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5.7.29.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9/10	4	1	14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섭교 위원, 정성일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5	-	1	10	-	10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 다. 전월(6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b>&lt;팩트 체크 코너 관련&gt;</b> 팩트체크 관련 '세종보 수문을 열어도 녹조 발생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찬반 비중이 동일한 것 같은데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함. 다양한 의견과 접근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람	팩트체크는 총 10편을 진행예정인데 세종보는 2번째였음. 보도 마지막에 별도의 검증을 거쳐 편정을 하게 되는데 세세하게 보여주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어 보임.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음 <b>&lt;25. 7월 조치&gt;</b>	'25.6월
보도	<b>&lt;뉴스 영상 썸네일 관련&gt;</b> 대전MBC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라온 동일한 내용의 보도 영상의 썸네일 형식이 다른데 동일하게 해주길 바람	유튜브에 탑재한 뉴스와 대전MBC 홈페이지에 탑재한 동일한 뉴스에 대해서는 썸네일 형식을 통일하도록 하겠음 <b>&lt;25. 7월 조치&gt;</b>	'25.6월
보도	<b>&lt;노동자 사망 사고 보도 관련 &gt;</b> 지역에서 거의 매달 하청업체 직원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함	6년 전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망사고 보도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번 김충현씨 사망 보도로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겠음 <b>&lt;25. 7월 조치&gt;</b>	'25.6월
보도	<b>&lt;리박스쿨 관련 보도&gt;</b> 대전판 리박스쿨에 대한 심층 보도가 있었는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임	잠입 취재를 해서 빼돌린 교육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음. 오늘도 국립대학 교수의 발언 관련 보도도 예정되어 있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관련 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임 <b>&lt;25. 7월 조치&gt;</b>	'25.6월
보도	<b>&lt;뉴스 자막 사용 관련&gt;</b> 뉴스 자막을 너무 생략하다 보니 실제 보도 내용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중립성을 저해할 요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자막을 사용해 주길 바람	뉴스 자막과 관련해 시청자들에게 보도 내용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음 <b>&lt;25. 7월 조치&gt;</b>	'25.6월
보도	<b>&lt;아산 종교단체 관련 보도&gt;</b> 아산 종교단체의 만행에 대해 단독 보도를 하였고 여러 입장을 담은 후속 보도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음.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련 취재를 부탁함	해당 종교단체의 반박을 수용해 가면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보도를 잘 하고 있음. 시청자들의 눈높이나 상황을 고려해 관련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고 있음 <b>&lt;25. 7월 조치&gt;</b>	'25.6월
보도	<b>&lt;한화이글스 관련 주제&gt;</b> 야구관람이 어려운 노인들의 소외문제, 장애인 보조좌석 문제점, 야구장 주변 교통문제와 상인들의 입장 등 야구장과 표 판매 시스템의 문제 등을 다뤄주길 바람	한화이글스가 단순히 스포츠클럽으로서가 아닌 지역의 문화적인 자산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뉴스나 시사각각 등에서 관련 내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강하겠음 <b>&lt;25. 7월 조치&gt;</b>	'25.6월
교양	<b>&lt;세대 갈등 관련 방송&gt;</b> 최근 세대 갈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3년 전 방송했던 '딸과 함께' 라는 콘텐트처럼 세대갈등을 다루는 방송을 해주길 바람	하반기에 학생과 교사의 고민을 공유하고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인<오지랖 보건실>과 노인 세대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애들은 가라 1호정>을 준비하고 있음 <b>&lt;25. 7월 조치&gt;</b>	'25.6월
교양	<b>&lt;데일리 프로그램 관련&gt;</b> <오늘M>에서 다채롭게 구성해서 많은 지역의 정보를 주고 있는데 지역에 보이지 않는 보석 같은 보물들을 많이 찾아주고 지역 아젠다도 많이 발굴해 주길 바람	<오늘M>이 종합매거진 형식이다 보니 화제의 현장, 먹거리, 인물, 날씨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b>&lt;25. 7월 조치&gt;</b>	'25.6월
교양	<b>&lt;수어 방송 관련&gt;</b> 뉴스에서는 수어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수어 방송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함.	예산 여건상 현재 뉴스데스크에서만 수어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자막방송을 하고 있음. <b>&lt;25. 7월 조치&gt;</b>	'25.6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5년 7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김 욱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5.1~26.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총보팀장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5.1~26.4.30
위원	문선혜	전앤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라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후속 보도 관련> 단독 보도로 지역의 백제 역사 왜곡, 금산군 공무원 복귀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후속 보도를 챙겨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카메라 영상 관련> 프로그램에서 카메라 영상이 흔들리고 안정되지 못한 장면들이 나왔음. 뉴스영상에서는 카메라 색 온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음. 그 전에는 주황색 톤이 많았는데 7월에는 초록색 톤이 많았음.	회의록 첨부	○		
보도	<폭염 지도 관련 보도> 폭염위험 지도를 분석해주고 문제점을 짚어준 보도는 의미 있었으나 지역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불평등 프레임이나 지역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음.	회의록 첨부	○		
보도	<비난 용어 사용> '송환시설 의원의 황소 비난' 보도에서 시민사회 시민들이 지적하는 목소리를 '비난'이라는 용어보다 '비판'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교양	<방송시간 및 홍보 관련> '오지랴 보건실' 프로그램의 주체인 고등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방송 편성시간에 대해 고민해 주고 교육청 홍보도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 주제 연영총> '시시각각' 주제가 대선, 남북관계, 의료개혁 등 시의성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청년층에 대한 이슈가 반영된 주제도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교양	<인생내컷 출연자 관련> 지역 공동체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살아가는 예술가분들이 많은데 그런 다양한 분들과 연구단지 과학자 분들의 일상도 담아서 방송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학교 설립 관련> '오지랴보건실'에서 용남고와 한일고 편을 봤는데 일 반고이기는 하지만 평범해보이지 않아서 평범한 학교도 진행해 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다시보기 자막방송 관련> 홈페이지나 유튜브는 다시보기에서 자막방송 기능으로 보 게 되면 시자동 자막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확도가 떨어 짐. 확인을 부탁함.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청자의견)	<앵커 메이크업 관련> 시청자의견에 올라온 것처럼 앵커들의 메이크업이 70년 대 배우들의 크 분장처럼 과하다는 느낌이 있음.	회의록 첨부	○		

## 2025년 7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7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9명)

김옥 위원장, 백강희 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박은숙 위원, 이현옥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5명)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10분 중에 9분이 참석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장님과 전략기획실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이 올라왔는데요. 영상 삭제 요청이 3건,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 1건, 진행자 불만 1건 그리고 기타 4건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특히 없으시면 7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잠도 설치는 이 무더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도 밖에서 땀 흘려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시청자분들과 시청자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칭찬할 건 가감 없이 칭찬해 주시고 질타할 건 질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미리 단독방에 알려드렸듯이 <오지랖 보건설>이라는 새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시청자위원장이신 김옥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이렇게 더운데 오늘 시청자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더위 잘 이겨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보니까 위원님들이 준비를 꼼꼼히 잘해 오셨는데 오늘

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조원희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

시청자 위원회 의견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오지랖보건설>에 대한 내용을 접해서 제시하려던 의견과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시시각각> 주제가 대선, 남북 관계, 의료 개혁, 그리고 최근에는 폭염과 급식 노동자 배달 이슈 등 시의성 있게 다뤄졌는데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청년 세대에 대한 시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5월부터 7월까지의 내용들을 보니까 청년층을 직접적으로 다룬 내용이 5월 1일에 '6·3 조기 대선, 청년이 온다' 단 한 편이었어요. 대전 청년 인구 비중이 전국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대전 청년들을 위한 정주 여건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이슈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청년층에 대한 참여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오지랖보건설>을 보게 됐고요.

신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이슈가 다뤄진 반면에 20~30대 청년층, 특히 대학생이라든가 취준생, 청년 창업자들을 본격적으로 다뤄주는 시사교양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공영 방송 취지에 맞게 대전의 시정 기초와도 발맞춰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청년과 관련된 주제도 확대됐으면 좋겠고 청년 패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옥 위원장

다음으로 최승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인 위원

저도 <오지랖보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 뉴스라든지 케이팝, 트로트가 일색인 방송 상황에서 모처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서 반가웠고요. 요즘 어른들 삶이 여의치 않듯이 청소년들의 하루 일과도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10대 학생들의 진로 관계라든가 가족 소통, 학교 내 갈등 등 실질적인 고민에 주목하여 학교 구성원들 전체가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와 닿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전문가 그룹을 멘토로 무거운 상담 위주인데 솔직하고 유쾌하게 잘 풀어가서 학생들 속마음을 잘 이끌어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점점 성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건 참여 다양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계속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목요일에 본방이 토요일 오전에는 재방이 편성돼 있는데요. 사실상 학생들이 방송을 접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링크는 되어 있지만 혹시 가능하시면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관계 당국에 이런 프로그램이 기획됐고 현재 방송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전파하셔서 2학기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학기 중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속마음 상담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아이들의 가장 친한 선생님은 보건실 선생님과 위(Wee)센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지랴보건실>은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단독 뉴스로 초등 국정 교과서의 백제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는데요. 백제 의자왕과 삼천 궁녀에 대한 왜곡 보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에서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후속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역사를 놓고 다양한 관점이 있고 또 해석이 가능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발현되는 역사를 다루는 점에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역사적 왜곡이라든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속 관련된 사항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완성본이 어렵고 이후 수정 보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후속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9일 MBC 단독뉴스 '두 번 우는 피해자'에서 금산군에 있는 성추행 혐의 간부 공무원 면장이 복귀한 내용을 봤는데요. 사건은 작년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2차 성추행 가해 후속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징계로 분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복귀가 되며 또 부면장까지 연관이 돼 있는데 그것을 회유하려면 군의원의 역할도 있었고요.

이번 보도가 끊이지 않는 공직기강 해이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를 잘 제기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분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전형적인 2차 가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흔히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직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면장에 대한 징계에서도 분리 조치라든지 직위 해제만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부면장에 대한 별도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내지는 처벌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인터뷰 과정에서 담은 가해자의 말 중에서 '술 한 잔 마시고 탬버린 치고 그렇게 했다'와 피해자 인터뷰 중에서 '가해자의 손에 이끌려서 어깨동무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멘트가 노래방 도우미를 연상되게 하는데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한 멘트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자들의 청렴이라든지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끊이지 않을 이런 사안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공익적 관점에서 잘못을 드러내고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도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욱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현욱 위원

<오지랴보건실>에서 용남고 학생들과 박건웅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조금 아쉬운 건 한일고 학생들의 순수함은 재미있게 봤는데 <오지랴보건실>도 그렇고 <오늘M>도 그렇고 짐벌 사용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많이 흔들렸고요. <오지랴보건실>은 포커스가 아예 나간 화면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 확대 들어가는 부분은 디지털로 파이널 컷에서 편집해서 확대한 것처럼 화질이 다 깨지는 상황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용남고 편에서는 카메라가 초록색 빛이 도는 것도 있고 주황색 빛이 도는 것도 있고 카메라 3대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M> 순창 편에서는 짐벌을 사용했고 색이라든지 색 온도라든지 컬러 밸런스를 잘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안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카메라 색 온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 방송을 보면 화사한 느낌의 주황색 톤이 많았는데 7월 방송을 보면 초록색 빛이 잘 돌아서 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충청권에서 제일 이슈인 '해수부 산하 기관 이전으로 인한 세종 인구 2천 명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뉴스침>에서 심층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 야구장 간판 추락과 수영장의 물이 넘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진홍 교수님의 개물림 사고 관련된 법률 상담을 비롯해 7월 한 달 동안의 영상 내용들은 정말 좋았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은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은숙 위원

저도 <오지랴 보건실>을 다시 보기로 챙겨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순수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방송 보기 전에는 상담이라는 콘셉트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고등학생들이 시니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재미있어 하고 또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일상을 그들의 눈높이로 살펴볼 수 있던 것도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고등어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처럼 고등학생들의 따뜻한 시선들도 같이 공유해 주셔서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방송 시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주체인데 그 주체들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책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MBC 프로그램들을 매일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이번 달은 <인생내컷>을 살펴봤거든요. <인생내컷>이 개인을 미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마을과 공동체, 또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팬츠는 다큐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인생내컷>을 이현동에서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녀왔는데 냉방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방송 촬영하시는 걸 보고 현장에서 흘리는 땀들이 방송을 만들어내는구나 하고 다시 한 번 저도 느끼게 됐습니다.

부여 자온길 박경아 디자이너 편을 살펴봤는데 작은 읍에서 마을 재생 프로젝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셔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 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만들어 가는 예술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논산의 진채밴드라든지 대청호 안아감 마을의 박석신 화가라든지 대청호 호숫가 마을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작은 영화제 같은 것을 해나가고 있어요. 대전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방영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대전하면 연구단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미 대전이 과학의 중심 도시에서 약간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연구단지가 조성되고 표준과학연구원이 제일 먼저 입주한 이래로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의 일상이라든지 그들의 고민들도 <인생내컷>을 통해 담아지면 연구 단지를 대전의 중심 이슈들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내컷>의 따뜻한 시선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뉴스에서 폭염 위험 지도 보도를 봤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폭염 위험 지도뿐만 아니라 도시 침수 지도도 제작해서 공유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폭염 위험 지도와 관련한 내용들이 방영되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것처럼 국가에서 제작한 것들이 널리 공유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김옥 위원장  
박은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강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백강희 위원  
<뉴스데스크>의 폭염 위험 지도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다 보니까 관련 보도가 나오면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는데요. 특히 대전MBC에서 폭염 위험 지도에 대해 분석해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신 데 대해서 의미 있고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폭염 위험 지도 관련된 보도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라든지 노후 주택 수 등 5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대전 지역 내에서 폭염으로 인해 가장 위험한 지역을 선정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폭염이나 폭설과 같은 기후 위기 보도는 계절성 보도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보도돼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발성의 뉴스가 아닌 시리즈 기획 특집으로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신다면 많은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특정 지역이 폭염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주신 건 굉장히 의미 깊은데요. 그러나 개인 혹은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재난 보도 준칙에서 어떤 한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요즘에는 폭염도 사회적 재난 중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는데 이 폭염 위험 지도 보도에서 구체적인 동 이름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이 동을 선정하신 것은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중에 경제적 요인들이 크게 반영된 지표를 계산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폭염이라는 불평등 프레임을 강조할 수 있고 또 그게 일종의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MBC에서도 서울 지역 내 싱크홀 위험 지도를 보도하셨거든요. 그 보도는 구체적인 지역명을 밝힐 필요가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해요. 지역민 차원에서 해당 지역을 통과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과 가급적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두고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폭염 위험 지도는 지역민 입장에서 예방하기도 쉽지 않고 구체적인 지표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나뉘진 것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보도에서 구체적인 지역명이 언급된 만큼 이러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성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정성일 위원  
지난달에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진숙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대전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지역 언론들이 철저히 객관적인 보도는 못한 것 같은데 대전MBC는 처음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총장 시절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방해 문제, 자녀 유학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꾸준히 보도해서 지면에 연연하지 않는 객관적 보도를 잘 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로서 우려가 있었는데 잘 보도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지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많이 있었죠. 지난달에도 고 김충현님이 사망하셨는데 이번에도 서산 대산공단이라든지 신탄진 한솔제지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등

보도 나가자마자 또 사고가 발생해 다섯 분이나 사망하셨는데 대부분 하청 노동자 문제였고 대전MBC가 이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대부분 하청 노동자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태안화력 사고도 타 방송국과 다르게 대전MBC가 심층적으로 보도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에 맞게 이번 달에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축하할 일이면서도 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감시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보도를 잘 하고 있지만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폭염 기획 보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 차례 보도가 나가고 가시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지표를 봤을 때 여기는 잘 사는 동네, 저기는 못 사는 동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거지 기획 방송에서는 노동 문제도 함께 다뤘었는데 주로 주거 문제로 쪽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분명 폭염 취약 노동 환경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야외에서 작업하는 일이라든지 급식 조리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기획이 계속 이어진다면 폭염 취약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에 기후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홍수 문제도 심각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수 관련 피해를 보도한 후 정치인들이 피해 현장 방문한 것을 보도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해 지역이 정치인들의 약속대로 복구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 조리원 문제가 기사로도 많이 나가고 <시시각각>에서도 다루어졌더라고요. 7월 3일에 설동호 대전 교육감이 급식 조리원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이 보도되고 이후 10일에는 폭염 속 급식 노동자 문제, 16일에는 노사 교섭 난항이 보도됐는데 사실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부분과는 상반된 처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 폭염이 심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 구속 보도가 9년간 고생해서 보도를 해왔던 이런 부분까지 다루어졌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 상에서 뉴스투데이는 영상과 기사가 일치하는데 뉴스데스크에는 영상과 기사가 불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이후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송환섭 의원에 대한 기사도 여러 건 있었는데 ‘강제추행 1심 유죄 송환섭 항소에 대한 비난 성명 잇따라’에서 비난이라는 말이 불편하더라고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정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인데 시민 사회에서 시민들이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비난’이라는 표현보다는 ‘비판’이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를 하다 보면 그런 시민사회의 비판 같은 것을 보도할 일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 비난과 비판을 잘 구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지랴 보건설>은 기대하고 봤는데요. 사실 자금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방송에서 제작한 예능임에도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용남고등학교와 한일고등학교가 나왔는데 다음 학교는 어디일지 궁금하고 그 두 학교가 일반고라고 하지만 평범한 학교로는 보이지 않아서 지역에서 평범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학생들이 보기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섬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섬교 위원

<오지랴 보건설>은 7월 17일 계룡시 용남고, 7월 24일 공주 한일고 편이었는데 앞으로 방영 될 학교 중에 충남 해양과학고등학교와 대전 전민고도 있어서 저는 학교 섭외를 스펙트럼 넓게 잘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고편을 봤을 때 여러 학교명이 제시되면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충남 등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MC를 맡은 한해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전민고 학생들한테 한해라는 래퍼가 와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자 의견에 올라온 것처럼 저도 앵커들의 makeup이 예전 70년대 배우들의 극 분장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보도를 깔끔하게 잘 하시는데 makeup이 과하게 도드라져서 이 부분은 저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보기를 통해서 MBC 방송 자막을 보신 분이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 역시 학교 방송에서 자막 사용이 필수이기 때문에 ‘브루(Vrew)’라는 자동 AI 자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막 검수를 따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시시각각>, <오지랴보건설> 등 다시보기에서 송출되는 자막이 많이 엉망인 걸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들 중 청각장애인이거나 외국어 학습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시끄러운 환경에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자막은 시청 콘텐츠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맞는 게 없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에서 건양대 파업이 있어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고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7월 27일 <시시각각>에서 청소년 우울증 급증 예방책 관련해서 병원장님, 학교 측, 상담 센터 이렇게 나와서 우울증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청년 층이나 장년층 그리고 청소년층 우울감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저희 학부모들도 이걸 보고 걱정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제는 좋았습니다.

김옥 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김미화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미화 위원

오늘 차 안에서 온도계를 보니까 외부 온도가 41도더라고요. 야외에 세워진 차량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실감할 수 있었는데 이런 폭염 속에서도 윤소영 기자님이 현장에서 직접 '40도 이상'이라는 말을 전하며 폭염 지도를 설명하는 방송을 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윤 기자님이 폭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 기획 보도를 이어가는 모습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고, 방송도 잘 보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야외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많고 대전 급식 노동자들이 가열 조리실에 가면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냉방이 고장 나면 40도, 50도에서 일을 하니깐 잠깐 있다 나온다는 사실이 <시시각각>을 통해 방송되었는데요. 산업 재해 예방 조치에 대한 사업주 의무라든지 국가 차원의 제도적 관심과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강화 조치가 있다면 후속적으로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기관에도 조리원분이 계신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조리실 환경은 어떤지, 시원하게 냉방 설치는 잘 돼 있는지, 조리할 때 열이 많이 올라가서 힘들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가까이서 살펴보며 관심 갖게 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오지랴 보건실>을 봤는데 보통 상담실에 상담하러 가는데 보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콘셉트가 신선했어요. 한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가장 좋은 점이 미소를 계속 유지하거든요. 보통 상담 프로그램들이 본인 얼굴을 공개하면서 심각하고 진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채널을 보면 돌리게 되거든요. 자막도 재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일고가 공부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기운이 느껴진다', '있는 건 논과 밭이고 없는 건 PC방' 이런 자막이 나오니까 거기 환경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을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아보는 취지의 건강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고등학생 학부모라 그런지 몰라도 학부모는 궁금해서 볼 것 같은데 학생들은 정말 재미있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자녀들에게 모니터를 요청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어떤 다양한 학교에 방문하게 될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함께 있습니다.

김옥 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총 8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섬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막 문제는 앞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폭염 불평등이라는 주제는 저 역시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언론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히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알리고 이슈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폭염이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라는 점을 짚어주신 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노동 환경이나 일터의 조건에 따른 차이 역시 크다는 데 깊이 공감했구요.

저는 여기에 더해 폭염이 세대별로도 다르게 체감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령층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기획 보도해 주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강희 위원님이 특정 지역명을 거론하는 것이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셨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 민감하게 반응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제작 시에 그런 시선도 고려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 주셔서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많이 공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 위원님께서 <시시각각>에서 청년 세대에 대해 많이 다뤄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지점이고 시의성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릴 때도 있지만 청년들의 취업이나 주거 문제 등 청년 이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단독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단독 보도 후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후속 보도를 철저히 해서 변해가는 모습들을 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취재가 시작되자'입니다. 취재가 시작되면 반응이 생기고 반향이 있고 제도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에 '취재가 시작되자'라는 이름으로 그해 취재가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를 돌아보는 보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앞으로 팔로우를 철저히 하고 취재 이후 실제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뉴스 카메라 화질이 급격히 변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뉴스 센터 카메라를 교체했는데요. 뉴스센터 카메라 화질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폭염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그것을 폭염 시기에 맞춰서 흥내를 내봤는데 이게 외부에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 기자들이 직접 한 땀 한 땀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청에 있는 분석 시스템 툴을 활용해서 만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설피고 얼기설기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섭외해서 제작을 했고요. 어제 서울 메인 뉴스에서는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양산을 쓰는 현상에 대한 보도가 나갔더라고요

요. 그런데 같은 날 지역의 폭염 불평등 문제를 다룬 로컬 뉴스도 함께 보도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꽤 뿌듯했습니다. 대전MBC가 지역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소 어설픈 수도 있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촌과 농촌 지역의 온열질환 발생 빈도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다룰 예정이고요. 제안해주신 폭염 취약 노동계층의 노동 환경 문제도 추가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낙인 효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인으로부터 “우리 동네를 그렇게 더운 곳으로 몰아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식의 항의를 직접 받았습니다. 낙인 효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예전에 태안 유류 피해 사고를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로 명명해 바꿨던 것처럼 특정 지역이나 지명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보겠고 표현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 담당 기자들과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섬교 위원님 말씀하신 자막 오타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재업로드 할 때는 수정을 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게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찾아서 영상 다시 보기에 자막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섬교 위원

보여지는 자막에 대해서는 실시간 방송이나 송출 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보기 서비스에서는 문제가 다릅니다. MBC 홈페이지든 유튜브든 모든 다시보기 영상 하단에는 자막 기능을 클릭할 수 있는데, 이 자막은 청각장애인이거나 외국인 등 자막에 의존하는 시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막이 영상 내용과 맞지 않거나 AI 자동 자막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학생 방송의 경우에도 송출 전에 자막을 반드시 사람이 검수해서 수정한 후 내보냅니다. 방송사에서 자동 자막을 쓰더라도 최종 확인과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보기는 그날의 방송이 반복해서 그대로 남는 기록이기도 하니 정확한 자막 제공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단지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라 MBC 공식 홈페이지의 모든 다시보기 영상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방송을 할 때는 ‘한국스테노’라는 업체에 맡기는데 유튜브에 연동돼서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그 부분까지 회사가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그 해결 방법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막 파일을 따로 작성해 올리거나 AI로 생성된 자막을 다시 한 번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에 대해 인지를 못했던 상황처럼 보

여서 그 부분을 논의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최근에 공공 어린이 병원과 건양대 병원에서 파업이 시작됐는데요.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뉴스 제작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자치단체가 ‘당부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요청’이라는 표현이 보다 수용성이 높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난과 비판의 차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해서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반영하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조원희 위원님께서 2,30대의 고민이나 니즈,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10대와 노년층(실버 세대)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년층은 제가 라디오에서 진행 중인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TV프로그램에서도 관련 주제를 다룰 기회가 있다면 제작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인 위원님 <오지랴 보건실> 시간대 편성과 교육청 홍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편성국에 편성 업무와 제작 업무가 있는데 편성도 제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로컬에서 사용 가능한 시간대로는 오전에는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1시간, 오후에는 5시 10분부터 7시까지 2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9시에 유일하게 서울MBC <실화탐사대>를 끊고 들어가고 있어서 학생들이 7시 정도에 귀가한다고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목요일 밤 9시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에 메인 프로그램을 많이 배정하고요. 또 아이들이 재방송으로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주말 시간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9시 30분부터 12시까지 2시간 30분, 일요일은 오전7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3시간 정도 편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말 저녁 시간대는 인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학생들 대상 프로그램을 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능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편성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오지랴 보건실>을 제작하면서 충남교육청, 대전교육청과 협조를 많이 하며 진행한 상황이라서 교육청 측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교육청에 별도로 요청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옥 위원님께서 전문가답게 밸런스나 카메라의 흔들림 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지적해주셨는데요. <오지랴 보건실>을 촬영할 때 카메라 직원도 한 분이 나가지만 외부 인력을 3명, 4명

쓰거든요. 근데 주로 사용하는 외주 카메라 인력들이 가끔 촬영 날짜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생내컷>, <오늘M> 등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촬영하다 보니 일정이 겹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번도 안 써본 외주 카메라 인력을 쓰게 되는데요. 외주 인력이 바뀌면서 카메라 장비도 달라지고 중요한 장면에서 카메라 감독님이 미스 샷을 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흠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애들은 가라 1호점>도 찍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 더욱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숙 위원님께서 <인생내컷>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출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박석신 화가는 '이름에 꽃을 피우는 화가'라는 이름으로 2년 전에 방송이 됐습니다. 저희가 충북과 함께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한 명의 인물 다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획했는데요. 한 인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한 인물의 이야기를 15~20분 정도는 충분히 다룰 수 있지만, 50분 분량까지 끌고 가는 것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50분 분량으로 기획하다 보니 일부 인물은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가, 셰프, 교사, 법률가, 수의사 등 독특한 분야의 인물들이 주로 출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충북과 함께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재가 부족해질 경우 출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께서 <오지랴 보건실>에 평범한 학교를 섭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용남고는 계룡시에 위치한 일반 공립고등학교 중 하나로 계룡에는 용남고와 계룡고 두 개의 일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지역 도시가 특별하지 고등학교는 일반고로 알고 있고요. 이섬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은 전민고와 대전여고처럼 일반고도 있고요. 충남은 보령 해양과학고와 공주 한일고가 있습니다. 자사고나 특성화고는 분위기가 어떨까 궁금해서 한일고 등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도 한 곳 포함되어 있는데 청양 정산중학교이고요. 학교 신청을 받았을 때 대전에서도 약 10여개 학교도 촬영해 달라며 신청했습니다. 그중 대전 원도심인 석교동에 위치한 동명중학교는 올해부터 영상·음악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해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총 6개 학교만 선정되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컸습니다. 예산 등 여건이 허락된다면 내년에는 시즌2 형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께서 <오지랴 보건실> 자막을 언급하셨는데요. 30대 PD 2명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기성 세대와는 또 다른 감각으로 뻘하지 않게 재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에게 전달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막 프로그램 검수 관련 부분도 유튜브에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분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는 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명, 분장 스타일, 출연자의 얼굴형 등에 따라 인상이 달라 보일 수 있는데요. 다만 저희 시스템 상 개인 분장사가 아닌 도급 형태로 분장 인력이 운영되고 있어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편성이나 보도 프로그램 출연자 분들께는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현재로서는 훈련을 거치면서 최대한 개선하려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부분도 충분히 참고하여 숙련된 메이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생내컷>의 경우 아이템이 인물 중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물 소재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촬영하신 본도 사실 6년 전에 한 차례 방송된 적이 있는 분이고요. 지역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풀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구석구석 발굴하지 않으면 겹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TJB 화첩기행 등 유사한 기획들이 있다 보니 방송 인물 중복도 종종 생깁니다. 박석신 화가도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고, 논산 밴드도 저희가 여러 방송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시던 분이 20여년 전쯤 제가 다큐멘터리로 한 번 다룬 적도 있습니다. 좋은 인물이나 아이템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은 소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 더 없으시면 위원장님 마무리 인사말로 마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 회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7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